

파워인터뷰

지용현

충북도청 동물방역과장



사육제한 방역정책은 오리산업 발전 걸림돌

방역친화형 시설설치 농가 자율방역이 최선



충북도는 오리사육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전남, 전북 다음으로 많은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오리장 14개, 도축장 2개, 계열사 본사는 3개 소가 위치한 오리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특히 충북도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축산 물동량이 많으며 축산차량의 경유지에 해당하여 충북도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역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철통방역으로 청정도를 실현하고 있는 충북도의 방역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지용현 충북도청 동물방역과장을 만나 오리 방역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시기 겨울철 6개월 30여 억원 예산 투입 ‘오리휴지기제’ 실시

1회용 알판-톱밥 지원-조기출하 장려금 지원 오리농가 사육환경 개선-AI 발생최소화

Q.
충북도의 오리 방역정책
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도의 오리 방역정책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방역정책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오리휴지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 6개월 동안 3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리휴지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리사육제한으로 경영상 피해를 받는 계열사 지원을 위해 겨울철에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리농가 사육환경 개선 및 위험시기 AI 발생최소화를 위해 오리 시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2억을 들여 알판 재사용에 의한 부화장간 교차오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알판을 지원하고 왕겨에 비해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고 발효가 잘되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톱밥을 지원하고 조기 출하 시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6개(무심천, 미호강, 보강천, 백곡지, 충주호, 달천)소에 11개 구간을 설정하여 축산차량출입을 통제하고 광역방제기 및 살수차 11대를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인근도로를 매일 소독,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가금농가 방역점검이나,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운영, 가금 전담관운영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충북도에서 예년과 다르게 오리부분에 신설된 사업이나 지원이 있을까요.

—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은 아니지만 2-3년 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난방비 지원과 조기출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올해도 다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리는 야생동물을 가축화한 동물로 추위와 가축전염병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겨울철에도 병아리때만 난방을 하는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겨울철에 휴지기제를 참여하지 않고 사육하는 농가의 AI 예방을 위해 수당 400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분뇨는 수분이 많아서 일정일령이 경과하면 깔짚을 넣어 주기 위해 매일 축사에 출입해야 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 유입기회가 많아지고 감염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방역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39일령 이전 조기출하를 유도하여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철새도래지 6개소에 축산차량 출입통제 거점소독시설 운영-가금전담관 병행 추진

Q.
충북도 오리농가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싶은 당부 사항 부탁드립니다.

—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과 관련하여 농가 소독 및 차단 방역에 힘써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절기에도 어김없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된 후 가금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충북도에서는 철새도래지인 미호강 수변 근처 가금농장에서 집중 발생했습니다. 모든 가금농가에서 차단방역이 중요하지만 철새 활동이 많은 하천 인근 가금농장은 사람-축산차량 등에 대해 2단계 소독 철저 및 축사 출입 통제 강화, 축사내 청소·소독, 축사출입시 장화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금농장 내 AI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고병원성 AI 차단 핵심



Q.
충북도 방역정책과장으로
서 오리산업에 대한 생각
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오리농가들에
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병원성 AI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실시
- ② 농장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대인소독 실시
- ③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폐쇄 조치
- ④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및 손소독 실시
- ⑤ 축사 내로 기계·장비를 충분히 세척·소독

—— AI 발생 우려로 몇 년 전부터 매년 겨울 오리사육을 제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휴지기 참여로 AI 발생 및 확산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 만큼 오리농가 미사육으로 오리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향후 항구적 고병원성 AI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오리사육을 제한하는 방역정책이 아니라 고상식 분뇨처리시설, 무창계사 등 방역친화형 시설설치와 오리농가 스스로 질병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자율방역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산발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도도 휴지기 종료농가, 발생농가 등에서 오리입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철새가 북상하고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경각심을 풀지 말고 차단방역에 소홀함이 없이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조일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라는 생각으로 농장내 소독 및 외출 후 옷 갈아 입기, 축사출입 시 장화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